

근친강간의 유형과 가족 역동성

THE TYPES OF INCEST AND FAMILY DYNAMICS

박혜영* · 김연옥** · 홍강의***

Hye-Young Park, MSW,* Yoon-Ock Kim, Ph.D.,** Kang-E Hong, M.D.***

요 약 : 본 논문은 근친강간의 사례분석을 통해 가족의 역동과 유형간의 관계를 근친강간이 발생한 가족의 유형을 부녀 근친강간, 모자 근친강간, 형제 근친강간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근친강간은 유형별로 가족의 역동성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부녀 근친강간에서는 가해자인 아버지가 정신병질적이거나 사회병질적이고,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역할 자체가 부재하며, 대신에 피해 자녀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드러났다.

모자 근친강간에서 드러나는 가족역동의 가장 특기할 사실은 배우자가 없는 어머니가 자신의 성적, 정서적 욕구를 아들과의 성행위를 통해 해소하는 퇴행적인 모습이었다.

형제 근친강간은 대부분 순위 가해 형제의 성적 호기심이나 성욕구를 손아래 형제와의 성행위를 통해 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특히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에서 촉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근친강간은 전체 가족병리의 표현으로 보아야 하며,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 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 전체가 치료 대상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건강한 가족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중심 단어 : 근친강간 · 가족 역기능 · 가족 역동성.

서론 및 문헌고찰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들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급속히 확산 되면서 1989년에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1991년에는 성폭력상담소가 개설 되었고, 1994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성폭력 문제에서 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대상인구는 여성이며, 폭력의 성격은 일반적

인 성폭력, 즉 가정의 성폭력(extrafamilial sexual abuse)이고, 반면에 피해 집단으로서의 아동과 가족내 성폭력(intrafamilial sexual abuse)은 이러한 관심에서 빚겨나 있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에 딸을 강간한 의붓 아버지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현실이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대법원 판결 1996).

가정내 성폭력, 즉 근친강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계부나 양부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회의 극히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희귀한 일로 인식하는

* 서울대학병원 의료사회사업실 사회사업가 Department of Social Work,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eonbuk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정신과 Div. of Child & Adol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데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실태 조사연구들은 근친강간이 적지 않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심리적 피해가 매우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이 근친강간의 발생빈도나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문제의 심각성은 사회적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개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게 된다. 더욱이 근친강간이 병리적인 가족환경의 결과이며 증후로서 하나의 '가족병'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개입이 더욱 요구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임상에서 실제로 접한 근친강간의 사례분석을 통해 근친강간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나타나는 가족의 병리적 역동성을 살펴봄으로써 근친강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그 예방과 피해가족 치료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1. 개념적 정의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近親相姦'이라는 용어 대신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近親強姦'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근친강간이 혼인이 금지된 성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로 규정됨으로써 '성폭력'의 본질이 희석된 채 '상간'으로 간주되어 온 경향이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이 용어는 이를 성인의 문제로만 인식하여 대다수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이 간과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흐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근친강간이라는 말은 진단적인 분류가 아니라 가족 관계에 있는 어른과 아동 사이의 성적인 행동을 서술하는 용어로 이는 아동에 대한 성학대의 한 종류이며, 크게는 아동학대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Conte, 1987). 이는 일반적으로 가족내 성폭력으로서 가족원, 혈연관계이거나 반혈연관계(half-blood), 입양에 의한 부모 자녀 관계, 계부모 자녀 관계를 포함한 가족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이다. 즉 근친강간은 결혼이 금지된 사람들-부모, 조부모, 삼촌, 형제 등-사이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성행동으로서 부모(양부모 포함), 대리 부모(위탁 부모, 내연의 배우자) 또는 확대가족원(예로 조부모, 삼촌 등) 사이의 어떤 형태이든지의 성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때 근친강간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들 사이의 혈연관계 보다 더욱 중요하다. 즉 혈연관계가 없는 계부라고 해도 그가 아버지 역할을 하므로

혈연관계보다 그가 차지하고 있는 친족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2. 발생현황

다른 가족폭력문제나 성폭력과 달리 근친강간은 문제의 은폐성으로 인해 정확한 발생빈도가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가해자인 성인이 피해자인 아동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근친강간에 대한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이해된다(Justice & Justice 1979; Kempe & Helfer 1980; Finkelhor 1986).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성폭력에 대한 현황파악 및 임상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이수경·곽영숙 1994). 그러한 한계속에서도 최근에는 그에 대한 실태조사가 서서히 시도되는 경향이다.

근친강간의 빈도를 보면 미국의 경우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30% 이상이 어린 시절에 성인남자와의 성접촉을 경험하였으며, 4~12%가 친척어른과의 경험, 1%가 친부, 혹은 의부와의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오경자 1994, 재인용).

우리 나라 경우 한국성폭력 상담소(1993) 통계를 살펴 보면 '91.2~'92.12월의 약 2년에 걸친 총 2,836회의 상담 중 성폭력 건수는 1,260건이며, 이중 근친강간은 210건으로 16.7%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피해시의 연령은 13세 이하가 피해자의 56.5%를 차지하였고, 20세 미만은 80.8%를 차지하였다. 또한 19세 이하 중에서 직계 가족구성원 가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친부가 39명, 계부가 17명, 형제가 34명이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근친강간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는 김현수와 신화식(1995)에 의한 연구가 있다. 1,7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결과 3.7%가 근친강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근친강간의 유형과 가족역동성

근친강간의 유형으로 부녀(父女), 모자(母子), 형제(兄弟) 등 이성간의 유형이 있을 뿐 아니라 부자, 모녀간 등 동성간의 근친강간이 있다. 그러나 부녀 근친강간 유형이 경찰이나 상담 기관 등 외부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고, 모자 근친강간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자 근친강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외부에서의 인지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적게 보고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형별 빈도에 있어서 형제 근친강간 유형이 상대적으

로 적은 이유는 그것이 부모-자녀 근친강간에 존재하는 긴장된 관계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외부로 잘 노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또한 형제 근친강간의 영향은 가해 형제와 피해 형제간의 나이 차이와 피해 형제의 나이, 그리고 부모의 불안과 피해 형제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다르나 다른 유형의 근친강간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덜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도 외부 노출을 막는 요인일 수 있다.

근친강간은 발생면에서는 가족의 성폭력과 같은 형태의 성폭력일지라도 그것이 일차적으로 가해 가족의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시작과 지속에는 가족의 역기능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성폭력과 차별화 된다(김현수·신화식 1995) Browning & Boatman(1977)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근친강간은 역기능적인 가족체계가 유지되기 위한 일종의 방어수단이라고 하였다. 즉, 가해 부모나 가해 형제가 단지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만 근친강간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 적합성, 가치감, 인정, 지위, 확인, 제휴, 그리고 정체성과 같은 非性的인 욕구 및 가해자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문제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오용하여 성인과의 성적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타협, 성숙, 상호성 등의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요구하지 않는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가령 가해 부모가 만일 배우자에게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그는 자녀에 대한 근친강간을 통해 그러한 느낌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거부에 대한 복수를 하기도 한다. 즉 그들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흥미는 부부관계의 악화나 충격적인 사건, 삶의 위기와 같은 유발인자나 스트레스에 의해 복합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볼 때 가족원간의 상호관계, 가족의 구조 및 역동성, 환경과의 관계, 상황적인 사건 모두가 근친강간과 연관이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근친강간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역기능적인 가족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부녀 근친강간 관련 연구문헌들은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서의 실패,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실패, 그리고 힘의 남용에 의한 모든 가족원들의 직·간접적인 기여 등을 부녀 근친강간에 있어서 가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한다(Sgroi 1982). 근친강간의 유발요인이 되는 이러한 이슈는 가해자의 심리 사회적 상태, 부부관계,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 가족간의 의

사소통 등의 가족 역동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첫째, 가족 역동성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은 자못 지대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가해자가 대처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아동과의 성행위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로부터 안도감을 얻으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명백하게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가해자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오로지 아동에게서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고착된 가해자(fixated offender) 유형이 있고, 반면에 기본적으로 자신의 나이 또래의 이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나 성인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부부로서, 부모로서, 경제적 등의 각종 어른의 책임감과 요구들로부터 회피적이 되어 아무 책임감이나 요구가 없는 아동에게 퇴행적으로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퇴행된 가해자(regressed offender)의 두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Groth 1986). 90% 이상의 가해자가 여기에 속하는데 가해자는 자신의 정서적인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성적인 행동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족의 역동성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부부간의 역할의 문제와 대인관계의 역기능, 그리고 성기능의 역기능이 있다. 부부관계의 대인관계 및 역할 관계 관점에서 두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가해자가 수동 의존적인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공격 지배적인 유형이다. 이들 모두는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불만족한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의존적인 남자의 배우자는 남편과 자녀 관계 모두에서 "심리적으로 부재(psychologically absent)"한 경향이 많은데 많은 경우 어머니의 가정 내에서의 심리적 부재는 "실제적인 부재(physically absent)"로 연결 되어 어머니는 자주 집을 비우고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진다. 따라서 이들은 남편과 자녀와의 부적절한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하므로써 근친강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해 아동을 보호하는데 실패하는 것이다. 공격 지배적인 남편의 부인들은 더욱 의존적이고 사회적으로 소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일을 갖는 형태로 집에서 나가고, 집밖의 다른 곳에 있으므로써 아동을 보호할 자신의 역할 책임감을 수행하는데 실패하는 것이다. 이 두 형태의 부부 모두는 부부 성관계에서 성적인 역기능과 성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 많은 부부에서 성관계가 전혀 없거나 매우 드물고, 단지 일부 부부에서만 성관계가 자주 있다.

세째, 어머니와 자녀들간의 관계에서도 역기능적인 패

턴이 있다. 즉 근친강간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아동간의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라기 보다는 형제관계 같은 역기능적인 패턴이 있고, 모녀간의 역할 전환이 보일 수 있다. 근친강간의 피해자인 딸의 어머니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녀 근친강간의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자아상, 감소된 신체 인식(body awareness)을 가지고 있고, 남자의 종속적인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며 수동적이고 부적합해서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부녀 근친강간이 시작 되고 지속 되도록 아동을 위험 속에 방치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Finkelhor 1979).

때때로 어머니와 딸 사이에 역할 전환(role reversal)이 있다. 어머니는 어른의 역할로 간주 되는 음식 준비, 장보기, 청소 등의 가사일을 어린 딸에게 하게 하곤 한다. 이런 가족에서 부녀 근친강간은 부모 자녀라기 보다 배우자 같은 관계의 양상을 보인다. 피해자인 딸이 청소년일 경우 "가성 성숙(pseudomature)"으로 묘사 된다. 즉 청소년 딸은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식사 준비라든가 동생들 돌보기, 그리고 아버지를 챙겨 주는 등 가사일을 돕는 책임감을 떠맡는다. 즉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은 집에서 어머니 역할과 유사하고 배우자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째, 가족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는 거의 모든 부녀 근친강간 가족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부모간, 부모 자녀간, 그리고 자녀간에 직접적인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거의 없다.

모자 근친강간은 전형적으로 가해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지체 되어 있거나 정신병적인 사람으로 묘사 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심한 정신질환이나 지능장애를 가진 어머니들만이 그들의 심리적인 손상 때문에 외부에 성공적으로 숨길 기술이 부족해서 외부로 노출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녀 근친강간에 비해 모자 근친강간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근친강간을 하는 아버지와 같은 역동성과 동기가 근친강간을 하는 어머니들에게서도 발견 된다. 그러나 근친강간을 하는 어머니는, 특히 그들이 편모라면, 아동에 대한 양육(nurturance)과 통제 욕구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자 근친강간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는 모자 사이의 나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고, 어머니가 어린 소녀 시절 성적으로(특히 근친강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배우자가 없고, 아동이 어른의 책임감을 떠맡고 있으며, 그리고 어머니의 난잡하거나 강박적인 성적 행동과 알콜이나 약물 남

용의 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편모 가족에서 아버지가 없는 경우 아동은 남은 한쪽 부모를 위해 부적절한 어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 혼돈과 역할 전환이 지속되며 이것이 근친강간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형제 근친강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가족의 문제와 상관없이 단지 어린 아동들의 성적인 실험이거나 순진한 아동의 놀이로서만 보고, 부모 자녀간의 근친강간 만큼 놀라지 않으며, 또한 가족의 문제로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제 근친강간이 부모 자녀 근친강간에서와 같이 명료하게 착취적이지는 아닐지라도 이것의 유발 요인이 된 가족역동성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가족역동면에서 살펴보면 형제 근친강간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에 문제(poor supervision)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제간의 성적인 접촉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허술하거나, 지도감독이 거의 없다시피할 때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근친강간에 있어 가족적인 원인에 대한 중요한 이슈는 부모의 자녀 보호에 대한 실패와 적절한 행동의 한계 설정에 대한 실패-예로 남녀 형제를 한 방에 재웠거나 역할 경계선 설정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친강간에 참여하는 형제 사이의 관계도 관심있게 관찰되어야 한다. 연령면에서 보았을 때 어린 형제들 사이의 근친강간은 청소년 연령의 아동에 의한 근친강간에 비해 성에 대해 탐구적이고 비공격적인 것일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청소년에 의한 형제 근친강간은 가해 형제가 더 병적인 경향이 있고, 가족 적응상의 문제를 시사한다. 즉 그는 자신의 적응상의 갈등을 외부 세계에서 행동화 하기 보다 오히려 가족체계 내에서 행동화하는 것일 수 있다. 만일 형제간에 나이차가 많지 않을 경우도 이것은 더 위의 형제에 의해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면 위의 형제가 어리고 순진한 형제를 확대하고, 통제하고,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 기타 가족 내에 형제 근친강간을 부추기거나, 자녀들이 부모의 성행동을 본 것에 의해 성적으로 자극 받은 것은 없는 지 보아야 한다.

연구방법

이 글에 제시된 사례는 총 9사례로, 부녀 유형이 5례(친부 4례, 양부 1례), 모자 유형(친모)이 2례, 형제 유

형(친남매)이 2례이다. 이 사례들 중 5사례는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필자들이 사례 노출 시기부터 종결시까지 직접 다루었던 사례이고, 3사례는 근친강간으로 인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임신과 관계 되어 입양 기관에 노출 되었던 사례이며, 나머지 한 사례는 서울대학병원의 사례기록에 의존하였다. 주된 연구방법은 질적 분석 방법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다.

사례분석

1. 부녀 근친강간(Father-Daughter Incest)의 가족역동

1) 사 례 1

이 사례는 '94년도에 친부의 근친강간과 부모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자취하며 고 3 재학 중이던 여고생이 아는 남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해 미혼모가 되어 입양기관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였던 사례로 입양기관 사회사업가와의 상담중 친부로부터의 근친강간이 밝혀진 사례이다. 의뢰자는 국고 5년시 친부에게서 협박과 폭력으로 처음으로 근친강간을 당하였고, 중2 때부터 고1 때까지는 실직해서 집에 있던 친부에 의해 상습적으로 근친강간을 당하였다. 그러다 의뢰자는 계속적인 근친강간에 대한 혐오감과 임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외삼촌의 학비 보조와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생활비를 벌며 살다 위와 같은 일을 다시 당하였다.

가족 배경을 보면 의뢰자는 1남 1녀 중 큰 딸로서 아버지(44세)는 노동을 하였고, 일거리가 없어 집에 있는 날이 많았다. 반면 어머니(42세)는 식당일을 하여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고, 남동생(15세)은 중3으로 패싸움을 하여 소년원에 수감중이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 일을 알게 된 후로 부모는 별거를 하였고, 의뢰자의 어머니는 아동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하였고, 이후로 3년간 의뢰자는 부모와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였다. 의뢰자는 아버지의 상습적인 근친강간 중 어머니가 혹시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2) 사 례 2

이 사례는 '92년 친부의 8세 딸에 대한 근친강간으로 인하여 장래 아동이 자살하거나 정신 이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한국어린이재단을 통해 본 병원 소아정신

과를 방문하였던 사례이다. 아동은 8세 외딸로 아동의 아버지는 아동이 백일이 되었을 무렵부터 아동의 기저귀 속으로 손을 넣어 아동의 성기를 만지고 빠는 등의 행동이 있었고, 아동 6세경부터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부부 성행위나 다른 여자와의 성행위를 아동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으며, 아동이 무서워 울면 성폭행한다며 협박하곤 하였다. 아동 7세경부터는 아동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근친강간 하였고, 당시 아동에게도 마약으로 의심 되는 주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후 아동에 대한 근친강간이 지속 되어 아동의 어머니가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의 아버지는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 중이었다.

가족 배경을 보면 아버지는 33세, 고 중퇴 학력으로 막노동 및 선원을 하였고, 성장 환경에서 부모로부터의 부적절한 돌봄, 방임 및 유기, 형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는 딸 근친강간 이외에도 마약 남용, 난잡한 성관계, 가학대음란증(sadism), 그리고 의처증과 아내구타 등의 심각한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아동의 어머니는 35세, 고졸로 원만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남편의 일방적인 교제 강요에 시달리다 강간 당하였고, 이후 동정심으로 결혼하였다. 그러나 결혼 후 위와 같은 문제 있어 아동의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아동의 아버지는 폭력과 협박으로 이를 거부해왔다.

3) 사 례 3

이 사례는 '94년 본 병원 산부인과에서 중3 미혼모의 아기를 본 사회사업가에게 입양을 의뢰하였던 사례로 아기 입양을 위해 미혼부 및 가족 상황을 조사하던 중 친부에 의한 근친강간으로 임신하였음이 밝혀진 사례이다. 아동은 부모가 별거한 직후인 국 6년부터 분만 전까지 4년 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근친강간을 당하여 왔다. 주거 상황을 보면 지방 소도시의 방 두 칸에 한 방은 아동의 오빠가 사용하였고, 한 방에 피해 아동과 아버지가 살았다.

가족 배경을 보면 아동은 부모와 2녀 1남 중 막내로 근친강간 당시 부모는 별거 상태로 아동의 어머니와 언니는 각각 혼자 나가 살고 있었고, 아동은 아버지,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동의 아버지(45세)는 국 중퇴 학력으로 노동일을 하고 있었고, 알콜남용과 노름, 변태적인 성행동, 난잡한 여자관계, 의처증과 아내구타가 있었으며, 부인의 이혼 요구와 딸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위자료를 요구하곤 하였다. 반면 아동의 어머니는 저

학력이나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강하고 애정이 많은 원만한 성격으로 남편 대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였고, 남편이 큰 딸을 근친강간하겠다는 발언에 큰 딸을 산업체 고교로 떼어 내보냈고, 이후 이혼과 딸을 줄 것을 요구하며 별거에 들어 갔었다. 그러나 아동의 아버지는 폭력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아동의 어머니는 별거중 약간의 불안감 있었으나 아동의 나이가 어려 설마 하었다고 하였고, 아동의 오빠는 어느 시점부터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4) 사 례 4

이 사례는 '92년도 4세 여아의 어머니가 아동의 친부가 아동 3세경부터 손가락을 아동의 질에 집어 넣는 등의 근친강간 행동을 하여 남편과의 별거 상태에서 본원 소아정신과 외래에 아동을 의뢰하였던 사례이다.

아동의 가족 배경을 보면, 아동은 조모, 부모, 그리고 6개월짜리 여동생과 지방에서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35세)는 고졸의 트럭운전사로 아내구타,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알콜남용, 난잡한 여자관계 및 성관계가 있었다. 반면 연상인 아동의 어머니(39세)는 고졸로 남편의 집요한 결혼 강요에 못 이겨 결혼하였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였으나 차분하고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의뢰 당시 아동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가족들에게 노출시키자 아동의 조모는 아동의 어머니를 정신이상이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결함을 요구하는 아동의 아버지의 지속적인 요구에 아동의 어머니는 별거중 생활고에 시달리다 남편의 재결합 요구를 받아 들여 이후 재결합하였고, 병원과 연락을 단절하였다.

5) 사 례 5

이 사례는 '92년도에 의뢰 되었던 사례로 아동은 6세 여아로 양부에 의해 1년간 항문 성교의 근친강간을 당하였다가 다른 집으로 유기 되어 그곳의 위탁 양육자에 의해 근친강간이 밝혀져 본 사회사업가에게 의뢰 되었던 사례이다. 아동은 심각한 신체적, 정서·행동 문제를 보였는데 아동의 가족 배경을 보면 불완전한 결혼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은 5세경 친부에 의해 다른 집으로 보내져 사적인 입양(불법 입양)이 되었다. 당시 양부(36세)는 전기공으로 불임이었고, 괴팍한 성격에 알콜 남용이 있었으며, 양모(31세)는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였다. 이 양부모는 불법 입양 1년 후 아동을 다른 집으로 유기하였고, 곧 이혼하였으며, 후에 다시 재결합하였다.

위의 부녀 근친강간 사례들을 보면 피해 아동의 연령이 피해 당시 3세로부터 5, 6세, 그리고 초등학교 5, 6년으로 대부분 학령 전기나 후기 아동기부터 근친강간을 당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근친강간에 의한 신체적인 피해가 임신과 분만으로까지 연결 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갖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해자인 아버지들은 대부분이(4명) 친부로 일반적인 통계를 뒷받침해 주었고, 그들 대부분이 가족의 역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정신병질적이거나 사회병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공격 지배적으로 알콜 남용이나 아내구타, 난잡하거나 변태적인 성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낮으며, 직업적으로 안정 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가해자의 배우자인 어머니를 살펴보면, 사례 1 경우 아동의 어머니는 부녀 근친강간의 지속에 간접적인 기여를 한 어머니로서의 역할부재가 보이고, 사실 인지후의 반응을 볼 때 매우 부적절한 어머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례 5 경우 양모는 아동을 신체학대하였고, 정보 부족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아동이 근친강간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지속되도록 방치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들 대부분 역시 남편의 학대를 받는 아내구타의 피해자로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사례에서 아동의 어머니는 이혼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나 남편의 폭력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가 없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남편 없이 아동을 돌보며 살아 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음과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자신감의 부족 등으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이는 그들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도 하겠다.

가해자의 부부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들은 세 사례(사례 2, 3, 4)에서 공격 지배적인 유형으로 배우자를 지배하였고, 반면에 배우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의존적인 관계패턴이 세 사례 모두에서 명백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세 사례 경우 배우자들은 이혼을 시도함으로써 그러한 관계를 지속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 가해자의 배우자들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자아상으로 의존적이며 가족 해체를 두려워 하여 부녀간의 근친강간이 오랫동안 지속 되도록 돕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사례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바깥일을 하며 집에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대신 아동의 아버지는 실직 등의 이유로 집에 있으며, 그때마다 아동에 대한 근친간간이 이루어졌음을 볼 때 아동의 어머니가 집에 없는 것이 근친간간 발생의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사례 3 경우도 부모의 별거로 인한 어머니 부재가 역시 근친간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이다. 편부모 가족에서 자녀가 편부모의 배우자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관찰되곤 하는데 사례 3 경우 이 아동 역시 집에 없는 어머니 대신 주부와 아버지의 배우자 역할을 하여 왔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열림터에 입소하였던 친부에 의한 근친간간의 피해자 14명의 가족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로 그들은 대부분 어릴 적에 어머니가 가출하여 어린 피해자가 집안일과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의 성적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어머니가 설사 있다 하여도 어린 딸을 남편의 폭력에 내맡겨 목인하거나 포기해 버리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자신의 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였다.

부부 성관계를 살펴 보면 세 사례 경우는 가해자는 강한 성욕과 함께 잦은 성관계 요구가 있었고, 변태적이거나 가학적인 성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례(사례 1과 5) 경우 자세한 정보가 없어 부부간의 성관계 역기능 여부를 알기 어렵다.

2. 모자 근친간간(Mother-Son Incest)의 가족 역동

1) 사 례 6

이 사례는 '92년도 모자 근친간간 관계에 있던 중2 남학생이 본 사회사업가에게 스스로 전화하여 상담을 원하였고, 약 10개월에 걸쳐 전화상담이 이루어졌던 사례이다. 아동은 어머니와 단 둘만의 모자 가족으로 아버지는 아동 국 4년에 사망하였고, 어머니의 근친간간은 아동의 국 6년부터 시작되었다. 아동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동의 성기를 만지고 애무하고 키스하였고, 아동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곧 성교를 하기 시작하였고, 2년째인 상담 당시까지 지속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족 배경을 보면 사망한 아버지는 중졸 학력에 노동을 하였고, 알콜남용에 아내 구타가 있었으며, 부부갈등이 많았다. 가해자인 아동의 어머니는 큰 키에 미모였고, 37세 중졸 학력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성격은 내성적이었고, 과잉 성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남자

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성인 남자와의 대인관계 및 성관계를 기피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동과 어머니는 아버지 생존시부터 밀착된 관계로 어머니는 아동이 성장 후까지도 목욕을 시켜 주었고, 옷을 벗고 같이 자곤 하였으며, 주위와 고립된 위치의 방 한 칸에서 모자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2) 사 례 7

이 사례는 '94년도에 피해 아동의 외삼촌이 입양기관에 전화해 모자 근친간간으로 아동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였는데 분만후 아기의 입양이 가능하냐며 전화로 상담하였던 사례이다. 아동은 중 3년 때 창녀촌에서 불량배들과 패싸움을 했다가 학교에서 퇴학 당한 16세 아동으로 국교 때는 착실한 편이었으나 중학교 입학 후부터 담배를 피우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패싸움을 하고 음란 비디오를 보며 창녀촌을 드나 드는 등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아동의 가족은 어머니와 아동 단 둘만의 모자 가족으로 아버지는 5년 전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37세 고졸 학력으로 화장품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동의 어머니는 아들이 퇴학 이후 잘못을 꾸우치고 검정고시 학원에 잘 다니다가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며 창녀촌을 드나들자 아들이 성병이나 에이즈에 감염될까 두려워 아들의 성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 관계는 서로 원하는 대로 지속 되었고, 아동의 어머니는 현재 임신 8개월로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동의 외삼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낳아서 키우겠다고 하고 있다고 하였다.

위 두 사례에서 모자 근친간간은 모두 모자 단둘만의 모자 가족으로 외부로의 노출과 외부에서의 인지가 어렵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두 사례에서 가해자인 어머니는 모두 친모로서 정신질환이나 지능장애가 없었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심한 정신병리적인 특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해 어머니는 모두 37세의 편모로서 모자 사이의 나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고,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며,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서 근친간간이 시작되고 오래 지속됨을 보인다. 그러나 퇴행된 가해자 아버지들이 그러하듯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배우자가 있었다라도 부부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정서적인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인 욕구가 출구가 막힌 성 욕구와 함께

아들과의 근친강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 나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요구 되는 상호성 등과 같은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회피로 아동을 성욕망의 대상으로 선택한 퇴행된 가해자 모습을 특히 사례 6은 보인다. 어머니의 성욕구 이외 근친강간에 작용하는 정서적인 욕구로서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양육(nurturance) 욕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례 7의 경우에는 이것이 명확히 드러나며, 사례 6 경우 역시 명백하지는 않지만 母의 아들에 대한 양육의 욕구가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가해 어머니의 자세한 개인력을 알 수 없으므로 과거 근친강간의 피해 여부나 난잡하거나 강박적인 성행동, 그리고 알콜남용이나 약물남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두 사례 모두에서 난잡한 성행동이 의심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배우자가 없어 정서적인 욕구와 성 욕망의 출구가 막힌 상태에서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 없는 아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서 성욕을 해소하는 퇴행된 모습을 보였다. 두 사례 모두 편모 가족에서 아동이 어머니와 부모 자녀 관계를 갖기 보다 배우자 관계 같으며, 실제로 배우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잘못된 역할이 두드러졌다.

3. 형제 근친강간(Sibling Incest)의 가족역동

1) 사 례 8

'90년 경기도 한 국교 양호교사가 국교 5년의 남자 아동이 집에서 여동생 2명(국3, 국1)과의 근친강간 뿐 아니라 학교에서 다른 여자 아동에 대한 강간을 주요 문제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아동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아동은 병원 입원 치료를 위하여 본 사회사업가에게 일시적으로 의뢰 되었다. 가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나 아동은 국교 3년 경부터 여동생들과의 근친강간 뿐 아니라 습관적인 강간과 도박이 있었다. 아동의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전자오락이 취미였으며, 외모는 신체적으로는 제 또래로 보였으나 얼굴 표정 및 분위기는 아동 같지 않은 어른 같은 인상을 주었다.

아동의 가족은 아동 7세경 친모와의 이혼으로 친부가 재혼해 계모와 동거하고 있었고, 계모는 33세에 임신 9개월로 아동의 여동생과의 근친강간을 발견하였다. 아동의 친부모는 이혼 전 모두 도박에 빠져 있어 거의 밖에서 지내며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고, 부부관계가 나빴으며, 아동은 1남 2녀 중 맏아들로서 동생들 밥을 챙겨

주는 등 부모 대신 부모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였다. 아동은 늘 부모가 집에 없었고, 경제적으로 빈곤해 강간을 반찬으로 하여 밥을 먹었다고 하였다. 의뢰 당시에도 아동의 가족은 전세 방 두 칸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방은 부모가, 그리고 한 방은 아동이 여동생들과 함께 사용해 왔다. 아버지의 재혼 이후 계모는 아동들에게 잘해 주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나 자세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었다.

2) 사 례 9

이 사례는 93년도에 고3 졸업을 앞둔 여학생이 남동생과의 근친강간으로 임신을 하여 분만을 앞두고 스스로 입양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이다. 근친강간력을 보면 의뢰자는 7세경 친삼촌에게서 위의 언니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근친강간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어 이후로 삼촌과의 관계는 단절 되었다. 그러나 의뢰자는 중학시절부터 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 많아졌고, 어려서 당한 삼촌과의 성행위가 자꾸 떠올랐고, 해보고 싶은 성욕구가 강해져 자위행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당시 5세 아래인 막내 남동생을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하였다. 처음에는 어린 남동생이 발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발기가 가능하였고, 이런 관계는 3년간에 걸쳐서 지속 되었다. 성행위는 식구들이 있는 안채와 떨어져 있던 아동의 문간방에서 가족들이 TV를 보는 동안 이루어 지곤 하였다.

의뢰자의 가족 배경을 보면 의뢰자는 4녀 1남 중 세째 딸로 부모는 고졸, 국졸의 학력으로 아버지는 수동적인 성격에 실직이 잦은 등 경제적으로 무능하며, 정서적, 경제적으로 부인에게 의존적이었고, 늘 집을 비웠으며, 자녀들에게 무관심 하였다. 반면 어머니는 적극적이고 강하고 지배적인 성격으로 파출부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일하느라고 역시 늘 집을 비웠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려서 두 딸이 삼촌에게서 근친강간 당한 것을 알고 제지 시킨 이후로 의뢰자의 언니 경우는 생리 날자까지 챙기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뢰자는 공부 잘하고 예쁜 다른 여자형제들과 부모의 편에 대상이었던 막내 남동생에 비해 능력면이나 외모면에서 많이 떨어졌고, 부모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거기다가 의뢰자는 내성적인 성격에 친구가 없었고, 늘 집안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였다. 의뢰자 가족은 모두 아들을 과보호 하였고, 남녀 형제들이 서로 허벅지를 베고 눕는다던지 하는 신체적인 접촉에 매우 허용적이었다. 의뢰자는 성에 대한

강한 욕망과 함께 부모와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제일 만만한 남동생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을 얘기하였다.

두 사례 모두에서 아동에 대한 부모 역할의 부재로 인한 지도감독의 문제가 보인다. 사례 8 경우 자녀들이 늘 부모없이 방치 되었던 모습 보이고, 사례 9 경우 역시 부모 역할의 부재와 자녀에 대한 편애의 잘못된 부모 역할이 보인다. 사례 8은 어린 아동들 사이의 남아에 의해 시도된 형제 근친강간으로 가해 아동의 성적인 호기심과 도를 지나친 성적인 놀이의 양상을 보이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도감독이 없는 모습이 보이고, 따라서 방임된 자녀들 사이의 제휴나 애정의 정서적인 욕구 충족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외로움이나 우울감, 소외감을 해소하려는 시도로서 보인다. 또한 잘못된 가족의 역할이 보이는데 부모가 없는 가족에서 가해 아동이 피해 형제들의 밥을 차려 주는 등의 부모 역할을 떠맡은 모습이 보인다. 또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남녀 형제의 한 방 사용에 역시 문제가 있었음을 보인다.

사례 9 경우 어려서 삼촌에 의한 근친강간의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해 아동이 청소년기가 되며 성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고, 성욕망의 충족을 위한 대상을 필요로 하였고, 그의 대상으로 부모 및 온 가족의 편애를 받던 어린 남동생을 부모의 방임에 대한 보복의 의도로 형제 근친강간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해 아동은 위와 같은 욕구와 함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족 되지 못하는 제휴와 애정의 욕구와 같은 정서적인 욕구를 동생과의 성행동을 통해 충족 시키고, 외로움이나 우울감, 소외감과 싸우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긴장을 방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가족에게 있어서 역시 부모의 지도감독의 부재 문제가 보이고, 남녀 형제간의 지나친 신체적인 접촉이 허용 되는 등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는데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년간 지속 되어 임신까지 하게 된 데는 가해 아동의 방이 안채와 떨어져 있었던 주거 상황이 역시 기여한 면 보인다. 따라서 위의 두 사례를 통하여 볼 때 기존의 형제 근친강간에서 흔히 보이는 가족의 역기능 문제가 그대로 보인다.

결론 및 고찰

사례분석의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사회에서와 마

찬가지로 근친강간의 발생이 병리적인 가족역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유형별로 가족관계의 특성이 서로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근친강간이 일어나는 가족의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나 경계의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았으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전도 및 역할부재라고 할 수 있다. 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근친강간의 경우 자녀가 성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부모의 배우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부모는 자녀에 대해 적절한 보호와 지도 등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의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의 구조와 관계에서 오는 애정의 결핍, 외로움, 우울감, 소외감 등을 아동과의 성행위를 통해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심리적 태도를 보였다. 이때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남용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 주거 조건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주거 상황은 경계가 무너진 가족 관계를 물리적으로 명확히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가 한 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근친으로서 역할 설정이나 경계 설정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가까와 경계 설정이 실패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아동 성학대의 가정내 성폭력인 근친강간은 가족의 역기능에서 비롯되는 '가족병'이라는 점에서 가정의 타인에 의한 성폭력과 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개입 전략도 아동에 대한 가정의 성폭력과 달라져야 한다. 즉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기능에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가족 전체가 그 대상이 되는 가족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안동현(1994)은 근친강간의 경우 가족치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것은 가족 안의 성폭력은 가족 전체의 기능이 회복되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내 역기능에 의한 근친강간과 장기간의 지속, 그리고 외부로의 노출이 안됨으로 인해 사회적인 개입이 이미 적절한 시기를 놓치거나 개입이 불가능해지고, 그 속에서 피해 아동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가 실로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상담소의 전화 상담 사례들을 통해 볼 때, 그들이 방문을 극히 피하고 전화 상담만으로 머무르는 현실을 볼 때 그들 역시 실제적인 사회적인 개입을 대단히 꺼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들 피해 아동은 인권의 사각 지대 안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재고될 필요가 있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회적인 개입 전략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김현수·신화식(1995) : 청소년이 지각한 근친상간의 가족역동.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6(1) : 56-63
- 대법원(1996) : 한겨레신문(1996. 2. 28일자)에서 인용.
- 안동현(1994) : 친족강간의 평가와 대책. 정신건강연구. 13 : 33-47
- 오경자(1994) : 친족 성폭력의 원인. 정신건강연구. 13 : 21-32
- 이수경·곽영숙(1994) : 소아 성학대에 대한 임상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5(1) : 184-193
- 이종복(1990) : 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성학대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아동학대예방 협회 제 4회 자료집
- 정동철(1990) : 중학생의 성폭력 실태 조사.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제 4회 세미나 자료집
- 한국성폭력상담소(1993) :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주년 기념 자료집.
- 한국여성개발원(1992) :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Auerbach LE and Walker Ed. D., ABPP(1988) : Handbook on Sexual Abuse of Children,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Browning DH & Boatman B(1977) : Incest : Children at Risk. Am J Psychiatry 134 : 69-72
- Conte JR(1987) : Child Sexual Abuse,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8th Edition.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Finkelhor D(1979) : Sexually Victimized Children, New York : Free Press.
- _____ (1986) :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 Current Research Reviewed. Psychiatric Annals 17 : 233-241
- Groth AN(1986) : The Incest Offender. In Sgroi, S.M. (Ed.), Handbook of Clinical Interventions of Sexual Abuse.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 Justice B & Justice R(1979) : The Broken Taboo : Sex in the Family, New York : Human Science Press
- Kempe CH & Helfer RE(1980) : The Battered Child (3rd 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groi SM(1982) : Handbook of Clinical Intervention in Child Sexual Abuse. Lexington Books

THE TYPES OF INCEST AND FAMILY DYNAMICS

Hye-Young Park, MSW, Yoon-Ock Kim, Ph.D., Kang-E Hong, M.D.

Department of Social Work,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ypes of incest and family dynamics. 9 incest cases were collected from the Department of Social Work,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and an adoption agencies. The study cas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of incest, father-daughter incest, mother-son incest, sibling incest.

The father-daughter incest families revealed various dysfunctional family dynamics such as sociopathic father, 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 absent mother, pseudomature child, and lack of communications among family members. In mother-son incest families, the fathers were absent and the mothers abused their sons as an outlet for their sexual desire, which was most pathological, among three types of incest. Sibling incests were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parental supervisions and appropriate emotional care, and younger sibling becoming a sexual outlet of older sibling.

It is evident that the incest does not occur simply because of pathology of one family member but because of family dysfunction. Therefore the incest was a kind of 'family disease', and the focus of treatment should be on the whole family.

KEY WORD : Incest · Family dynamics · Family dysfunction.